

“내 옆에 버바 왓슨…졸지 말자! 최진호”

데뷔 13년 만에 '꿈의 무대' 입성

드라이빙레인지 시절 내 수십대트럭 장관 연습그린에 세워진 전설의 동상 '감동 2배'

“여기가 바로 꿈에 그리던 PGA 투어구나.”

2016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를 제패하고 1인자가 된 최진호(33·현대제철)가 17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퍼시픽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제네시스오픈에 출전한다. 돌고 돌아 프로 데뷔 13년 만에 꿈의 무대 PGA 투어에 서게 된 최진호가 스포츠동아 독자들을 위해 PGA 투어 첫 도전의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감동 또 감동

구불구불 도로를 따라 리비에라 골프장의 정문에 도착했다. 월요일 오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플레이어'라고 써 있는 내 차를 발견하자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선수들이 타고 온 자동차들이 쪽 늘어서 있는 광경만으로도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PGA 투어란 뭔가 남다른 곳임에 틀림없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클럽하우스는 생각보다 작았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국내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비교하면 오히려 초라해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품고 있어서인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가 긴장하게 만들었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하자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라커룸으로 안내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라커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내 자리는 최경주 선배의 옆에 배정됐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TV로만 보던 선수들이 옆을 스쳐갈 때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의식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신기했다. '저 선수들과 함께 경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 긴장이 밀려왔다.

클럽하우스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을 여러 코스 가늠앞에 펼쳐졌다. 바로 앞에 1번홀 티잉 그라운드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연습그린이 위치했다. 그 순간 입구 쪽에 세워진 동상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골프의 전설 중 한 명인 벤 호건이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 대회의 전신인 LA오픈에서 우승했던 기록과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 숏한 전설과 스타를 탄생시킨 유서 깊은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왔다.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기 위해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신기하고 부러운 PGA 투어

코스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먼저 클럽하우스를 나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이는 코스는 인상적이었다. 마치 먼지 한 톨 없이 잘 관리된 카펫을 깔아놓은 듯 곱게 빛나는 초록의 잔디가 가슴을 뛰게 했다.

드라이빙레인지의 시설도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다. 주변으로 수십 대의 트럭이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다. 선수들에게 장비를 만들어주는 이동식 피팅트럭과 마사지센터, 의료센터 등 그 규모와 수준이 부럽기만 했다. 드라이빙레인지 뒤로는 갤러리스탠드가 설치돼 있어 언제나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한 배려 또한 눈길을 사로잡았다.

월요일 오후 들어 조금씩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TV로만 보던 스타들의 모습이 보이니 신기했다. 잠시 후 연습하고 있는 버바 왓슨과 인사하며 얘기하는 안병훈이 눈에 들어왔다. 나에게도 대단한 스타처럼 보였던 선수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다. 그 순간 'TV에서 볼 때는 대단한 스타처럼 보였지만, 이곳에선 다 같은 선수일 뿐이구나'

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언젠가 나도 저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 서면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지.

가볍게 연습을 마친 뒤 후배 강성훈, 김시우와 함께 코스로 나갔다. 잘 다듬어진 코스 위에서 라운드를 할 생각에 마음이 들쭉했다. 사실 이 코스는 지난해 동계훈련 중 갤러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최경주 선배의 경기를 보면서 18홀을 돌아봤다. 그때도 코스가 만만찮게 보였는데, 실제 코스 안으로 들어가보니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인코스(후반 9홀)는 페어웨이가 좁으면서 그린까지 작아 공략이 쉽지 않게 보였다.

연습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힘이 나는 일이 생겼다. 멀리 미국땅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팬들이 작은 목소리로 "최진호 프로, 파이팅!"이라며 응원해주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힘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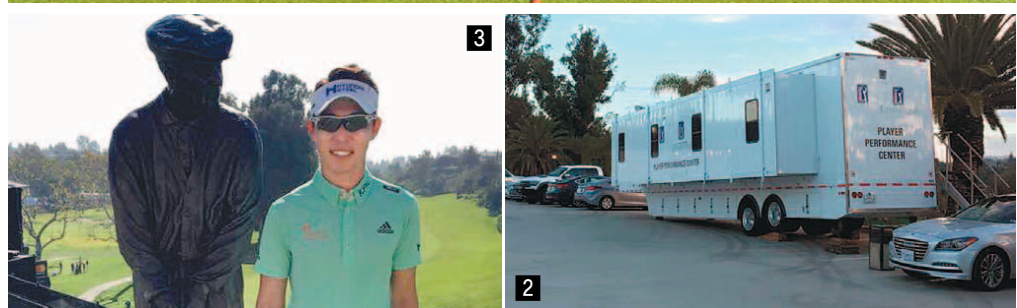
저녁에는 최경주 선배의 조대로 식사를 함께 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따뜻한 배려와 조언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대로 즐겨봐라"는 최 선배의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됐다.

하루하루 준비하다보니 어느덧 D-데이가 다가왔다. 수요일에는 일찍 연습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숙소로 들어왔다. 1라운드는 오후 1시15분 티오프 시간을 배정받았다. PGA 투어의 과자 골퍼로 잘 알려진 브라이언 디켄보, 리치 버버리안과 같은 조다.

밤이 깊어질수록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심장소리가 더 크게 요동을 치는 것이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PGA 무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졸지 말자. 열심히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고 후회 없이 쳐보자. 내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최진호, 파이팅!"

-리비에라에서 최진호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를 제패하고 PGA 투어에 도전장을 낸 최진호는 17일(한국시간) 리비에라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제네시스오픈에 출전한다. PGA 무대에 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할 뿐이다. (사진1) 퍼팅 연습 중인 최진호. 뒤쪽에 검은 옷을 입은 선수는 애덤 스코트이다. (사진2) 선수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마사지센터가 따로 마련돼 있다. (사진3) 최진호가 클럽하우스 옆 연습그린에 세워진 벤 호건 동상 앞에 섰다. 사진제공 | 최진호

박성현 “美 무대 부담 반, 설렘 반…4년내 세계랭킹 1위”

KEB하나은행과 메인스폰서 계약 소감

“부담 반, 설렘 반이다.”

박성현(24)이 새로운 비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국내여자골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KEB하나은행과 메인스폰서 계약을 했다.

16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박성현과 KEB하나은행의 후원 계약식은 남달랐다. 박성현이 계약식 무대에 오르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팬들



박성현

이 뜨거운 환호로 맞아줬다. 지금까지 후원사와 선수의 계약식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러나 '남다른' 박성현의 계약식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성현은 팬들에게 멋진 스윙으로 화답했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는 힘차게 휘둘렀다. 2017시즌 팬들 앞에서 선보이는 첫 스윙이었다.

그동안 소문도 무성했고,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즌이 개막한 뒤에야 계약에 성공했다. 박성현은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부담은 없었다. 그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다. 좋은 대우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박성현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세마스포츠마케팅 이성환 대표는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은 2년.

박성현은 3월 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위민스챔피언스에서 기다렸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른다. 약 2주 정도 남겨둔 박성현은 “광장히 설렌다”며 “3년 전 루키로 데뷔하면서 첫 대회에서 30위 안에 드는 게 목표였다. 이번에는 15위 안에 들고 싶다. 열린 경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비는 잘 됐다. 박성현은 “데뷔전이 늦어졌지만, 그 대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도움이 됐다. 올해 세 스폰서도 만나고 새로운 클럽으로 교체하면서 시간이 필요했는데, 나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현은 지난해 12월말 미국으로 들어가 2개월 남

짓 훈련에만 집중했다. 쇼트게임과 새로운 코스(잔디) 적응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 가지 고민은 남아있다. 영어공부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박성현은 “영어의 ‘영’자만 들어도 스트레스다”며 “내가 이 정도로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지 몰랐다. 아무래도 천천히 가야 할 것 같다”고 속스라워했다. 데뷔전은 늦어졌지만 가야 할 길은 확실히 정했다. 박성현은 “작년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 출전에 대한 꿈이 더 커졌다. 4년 안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팬들 앞에서 약속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홈페이지 : www.dong-a-fairs.co.kr

한글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관람안내



제10회 동아 기프트 쇼 The 10th Dong-A Gift Show



전시품목

선물용품/편축용품/부티용품/주류/생활용품
아이디어 및 디자인상품/IT·스마트폰관련기기

- ◆기간 : 2.17(금) ~ 2.19(일)
- ◆장소 : SETEC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앞)
-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토·일요일도 동일)
- ◆주최 : 동아전람
- ◆관람문의 : 동아전람 Tel.02)780-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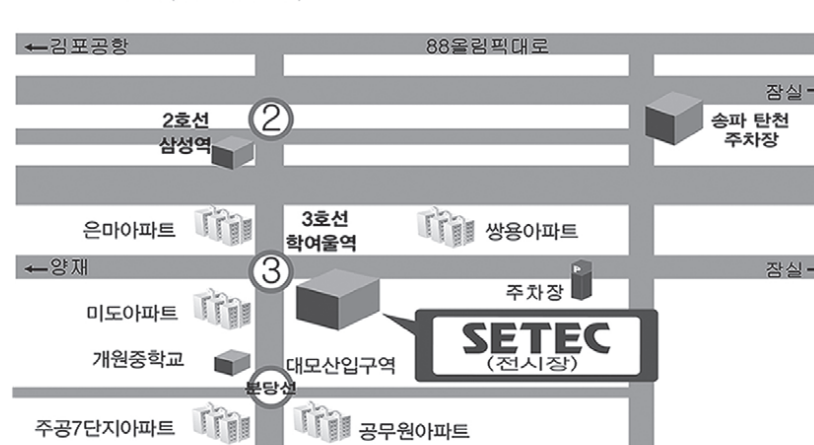
제8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The 8th Dong-A Tea & Craft FAIR



전시품목

차(茶)/도기및다기류/공예품
천연염색/핸드메이드·DIY

•오시는 길 (SETEC) - 네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 버스

사당역·남부터미널 : 4319 / 양재역 : 917
수서역 : 401 / 송파역 : 3012 / 광교 : 6900
성남·분당 : 4419, 9407 / 인천공항 : 6009
군포 : 917

▶ 지하철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앞
(출구는 하나)